

## 부모 및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하여

김 명 화\*

박 영 자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애착과 모애착 그리고 또래애착이 그들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자동적사고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중학생 391명(남 192명, 여 199명)을 대상으로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자동적사고, 분노표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중 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신뢰감과 또래의사소통은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유형들은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부, 모, 또래애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세 변인간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부적상관, 애착과 분노표현도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 모, 또래애착은 자동적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애착과 모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동적 사고는 완전매개를 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동적 사고는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분노표현에 개입함에 있어 자동적사고의 중요성을 시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자동적사고, 분노표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명화, 한양중학교 전문상담사,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106-207호  
Tel: 010-9639-1245, E-mail: touderi@hanmail.net

## 서 론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김현진, 2008),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이며, 생리-신체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김현주, 2009). 청소년기는 의존적인 아동기와 독립적인 성인기의 심리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어떤 발달단계보다 중요한데(윤진아, 2010), 청소년들은 일시적으로 정서적 불균형 또는 부적응에 처하게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개인특성,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경험하며,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열등감과 분노감정을 유발하게 된다(이선주, 2010).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의 청소년 폭력, 또래집단에서의 소외 등과 같은 외현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으로 분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현주, 2009; 이은주, 2007). 학교와 사회에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 폭력, 교사 폭행, 집단 괴롭힘, 가출, 성폭력, 음주, 흡연 등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현진, 2010; Caspi, Lynan, Moffitt, & Silva, 1993; Myers & Burkett, 1992).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듣는 교사가 있는가하면(중앙일보, 2012. 8. 12; 뉴스경남, 2012. 7. 11), 흡연지도를 하던 교사를 때리거나(경인방송, 2012. 6. 13)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경향신문 2011. 12.

19; 문화일보, 2012, 1, 2; 중앙통신뉴스 2012. 3. 1; MBC 뉴스 2012. 1. 12 등) 중학생들의 분노표현인 폭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분노는 부모나 교사로 대표되는 성인 집단에 대한 반항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래 집단에서의 폭력과 폭언과 같은 공격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차세연, 2009).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학교폭력, 가출 등의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는 그 심리적 근원이 정서, 특히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안윤영, 2012).

청소년기의 주요 심리적 특성의 하나가 정서적 격렬함 및 동요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공격행동 역시 정서표현의 하나이며 정서조절의 문제일 수 있다는 가정을 낳게 한다. 이러한 행동들의 개인적인 요소로 그 원인을 생각하면 분노를 포함하는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비행에는 반드시 분노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가 공격 행동 및 비행의 주요 유발인자라고 보면, 비행 청소년의 적응 문제 기저에는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민규영, 송현주, 2010).

분노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분노는 잘 표현된다면 인간의 적응을 위해 매우 필요한 감정이지만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분노만큼 개인이나 타인에게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감정도 드물 것이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행동은 신체적 및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전현숙, 손정락, 2011; 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분노조절의 실패는 공격성, 정서적 안정성, 충동성에 영향을 주며 폭행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박경택, 2001), 청소년들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에 원동력 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조유경, 2012; 김가희, 2008; 윤재선, 2001).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분노를 경험하게 되지만,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관리 실패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김광수, 2003; 김현진, 2010; 채유경, 2001). 많은 청소년의 비행, 학교폭력, 가출 등의 부작용문제는 그 심리적 근원이 그들의 정서, 특히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김광수, 2003; 채유경, 2001). 분노를 극도로 억제할 경우 어느 순간 극도의 분노가 표출될 수 있는데(신미영, 김재환, 2001), 분노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서 분노는 해결해야 할 정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해야 할 정서라고 인식이 되어있어(나승은, 2008),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분노가 발생할 경우 억누르는 것을 당연시하여 가르쳐왔다(김현진, 2010).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중심적 정서가 가능한 한 억제되고 특히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억압되거나 축소되며(차세연, 2009; 조궁호, 2003), 자기주장이 강하고 스스로 없이 감정을 표현하며 독립과 성취를 추구하는 인간형은 성숙이 덜 되고 무례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차세연, 2009).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우리 사회가 급

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에도, 여전히 한국인에게 중요한 가치체계로 존재하고 있지만(최상진, 정태연, 2001; 최해연, 민경환, 2007), 청소년과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단주의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차세연, 2009; 나은영, 민경환, 1998).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서구의 문화보다는 자기개방이나 자신의 감정노출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것과(신현숙, 구본용, 2001)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입하기 위해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가희, 2008).

분노표현에 있어 남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가희, 2008; 나성은, 2008)와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이명희, 2011)가 있어 분노표현에도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명희(2011)는 성별에 따라 분노표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의 차이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감정 표현에 있어 과묵하고 신중하게 표현하도록 학습된 결과로 보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분노표현의 방식에 다른 결과를 나타내므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돋기 위해서는 분노표현과 관련된 요인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애착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비교적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았으나(도금혜, 2008; 오송희, 1999),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높았고(김수희, 2009; 채진선, 2007),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높았으며(김수희, 2009; 오송희, 1999; 지수경, 2001) 부모애착의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이명희, 2011; 이정자, 2001) 연구들이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분노표현과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성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 분노표현을 함께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표현들을 한다면 그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만일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행요인이 다르다면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에 대한 개입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계획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분노표현에 있어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부모와 또래와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동적사고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 부모애착

애착(attachment)은 한 인간이 대부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써, 특히 유아와 어머니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 또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윤진아, 2010; Ani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재인용). 애착은 부모-자녀간 관계의 대표적 지표로서, 부모로부터 보다 독립적이 되어 가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로 작용하여 또래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이승연, 송경희, 2012; Bowlby, 1982; Ellior & Cormell, 2009), 청소년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최윤정, 2005; 장휘숙, 1997; Greenberg, 1983; Paterson 등, 1995).

애착은 전 생애를 통해 계속되며, 어머니의 애착 특성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Ainsworth, 1989),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애착 형성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정녀, 2004; Hazan & Shaver, 1987).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실패하는 경우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정서적인 안정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윤정, 2005). Mikulincer(1998)는 성인애착 유형과 분노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은 순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반면에 불안정하게 애착된 사람은 역기능적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은 높은 개인적 효능감을 지니고 있고 타인의 선한 의도를 믿기 때문에 좀 더 통제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한 이후에도 부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한다고 보았다(이명희, 2011).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은 영아기와 유아기의 애착과는 달리 애착대상에 대한 신체적 접근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독립성

이 증가되는 동시에 부모와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시기로 재개념화 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애착의 연속적인 영향력을 지지하고 하기 때문이다(이명희, 2011).

하지만,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기와 성인기에 관한 것이었고,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더욱 불안정한 정서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와 같은 정서적 특성과 애착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드문 것으로 보이며(김현주, 2009), 이상희(2011)는 청소년에 대한 애착관련 연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기가 발달적으로 불안정한 과도기라는 점과 애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애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화(2011)와 김정문(2008)은 자동적사고와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간에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 주은지(201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애착은 모애착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여학생은 부애착과 또래애착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또래 애착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고영남(2008)의 연구에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 또래애착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며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부모 관계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된다(이시은, 이재창, 2004).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면서 애착대상이 부모에게서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 확대되는 시기로(이영화, 2011), 발달 특성상 또래 집단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는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한현아, 도현심; 2008; Buhrnester, 1990). 이처럼 가족과의 관계에 국한되었던 관계가 또래 관계로 확장이 되는데 또래 관계는 아동과 성인의 관계처럼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이며(Hartup, 1992), 가족과의 관계처럼 무조건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이주영, 2009).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깝게 지내고, 부모가 자신을 계속 사랑해주고 보호해준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점차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아지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김현진, 2010; 김수희, 2009; 주은지, 2007), 주요 애착대상이었던 부모와는 조금 멀어지고(나승은, 2008; Steinberg & Silverberg, 1986, 이선주, 2010, 주은지, 2007; 이복원, 2008), 또래가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면서(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친구의 영향력은 증가하게 된다(이은주, 2008).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는 학령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Bryant, 1982)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 시기의 또래 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간과하기 어렵다(한현아, 도현심, 2008). 이처럼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며(이선주, 2010), 부모애착은 여전히 계속되는 동

시에 또래에 대한 애착도 증가한다(김수희, 2009).

청소년기에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이 모두 중요한 시기로(김수희, 2009; 주은지, 200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한현아, 도현심, 2008; 김현순,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기와 성인기에 관한 것이며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이시은, 이재창, 2004) 본 연구는 이에 관심을 갖는다.

### 자동적사고

자동적 사고는 우울증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이론과 치료기법을 제시한 Beck에 의해 발달한 개념이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를 자동적사고(automatic thoughts)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자극들과 심리적 문제 사이에는 자동적 사고라는 인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문, 2008).

부정적인 정서를 결정하는 자동적 사고는 환경적 자극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된 해석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환경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인 의미로 체계적인 왜곡을 하는 경향이 있다(김정문, 2008; Beck, Rush, Shaw, & Emery, 1979). 자동적 사고는 자기 자

신, 자신의 미래,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이 고 비관적인 평가적 내용을 포함하는데(이주영, 2009; Hollon & Bernis, 1981; Kwon & Oei, 1992; 1994; Stiles & Gotestam, 1989), 생각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고 정서 문제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지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영희, 2007). 즉,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반복된 경험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념에서부터 자동적 자기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이영화, 2011).

환경적 자극으로부터 떠올리는 사고의 내용이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내용이라면 심리적 문제는 경험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자극들과 심리적 문제의 사이에는 자동적 사고라는 인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아리, 2011).

신현균(2010)의 연구에서 자동적 사고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고, 문경주와 오경자, 문혜신(2002)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에 비해 중, 고등학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 성별에 따른 자동적 사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초등학생 대상의 심은실과 김영혜(2011)의 연구와 초4와 중2를 대상으로 한 신현균(2009), 그리고 중, 고등학생을 연구한 이영화(2011)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동적사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희연과 하은혜(2008)는 여아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 양재원, 홍성도, 정유숙, 김지혜(2005)도 중, 고여학생이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하였다고 하여

자동적 사고에 관한 성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영(2009)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행동을 증가시키며, 자동적 사고는 이를 매개하는 변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박한아(2006)는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임지연, 이영호 및 최영안(2004)의 대학생 대상의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 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 분노표현

분노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분노의 정의에는 생리적 증상이나 심리적 경험에 강조를 둔 것들이 있다. Booth-Friedman(1987)은 분노를 “실제로 어떤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지각되었을 때 촉발되는 자율신경계의 각성과 관련된 정서 상태”로 정의하였다.

분노(anger)란 다양한 강도의 감정들로 구성된 정서 상태로(나승은, 2008; 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감정 경험, 내적 신체 반응, 타인에 대한 태도, 공격 충동, 공격 행동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복합적 현상이지만(이훈진, 2001), 대체로 생리적 각성이 동반된 불쾌한 정서로서(김현진, 2010; 나승은, 2008; 서수균, 권석만, 2002) 비교적 단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훈진, 2001).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반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노 표현방식이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김가희, 2008). 특히 청소년의 분노는 사회적, 생리적, 성적 역할을 포함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달 특성상 정서적 격렬함 또는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고 있다(김광수, 2003; 채유경, 2001).

분노표현방식은 Spielberger(1983)에 의해 세 가지로 정의 되었는데, 이후 Spielberger, Reheiser과 Sydman(1995)은 분노표현방식을 적응적과 부적응적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적응적 분노표현방식으로 분노통제(anger-control), 부적응적 표현방식으로 분노표출(anger-out)과 분노억제(anger-in)로 나눌 수 있는데, 분노통제(anger-control)는 타인에게 인내심을 보이거나 냉정함을 유지하는 특성을 말하며 이는 분노상태를 지각, 감독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분노 표현방식을 말한다(나승은, 2008; 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분노표출(anger-out)은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며(차세연, 2009), 자신의 분노를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 모욕으로써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부적응적 표현방식에 해당되는 분노억제(anger-in)는 속으로는 화는 나지만 겉으로 화를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며, 분노의 원인을 제공하는 상대방을 피하거나 화난 이유를 말하기를 회피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유사한 연구를 보면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 같은 역기능적인 표현 행동과 비합리적 신념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전현숙, 손정락, 2011; 채유경, 2001),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았다는 연

구가 있었다(전현숙, 손정락, 2011; 서수균, 2004).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불안정했던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대감과 분노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나승은, 2008; Bowlby, 1983; Kobak et al, 1988; Kobak et al, 1993),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다고 평가될수록 자녀가 분노표현을 덜하게 된다는 박태영(2009)의 연구들을 볼 때 양육자와의 애착이 분노표현에 선행되는 요인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이후 또래 애착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데(나승은, 2008; 전효정, 이귀옥, 2000; 홍주영, 도현심, 2002; 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부모와는 공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쉽게 공유하는 등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개인의 주된 애착 대상은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나승은, 2008; Steinberg & Silverberg, 1986).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분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데(김현주, 2009; 이은주, 2007), 분노의 연구 대상이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채유경, 2001),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유아나 학령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또래애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윤진아, 2010), 청소년의 분노현상과 애착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설명해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각각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혹은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다

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에 의해 분노가 유발되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분노표현의 방식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통해 분노표현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보다 설득력 있는 모형을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래관계와 분노표현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적 사고가 중재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자동적사고와 분노표현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자동적사고와 분노표현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3. 부모, 또래애착은 분노표현과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자동적 사고는 부, 모, 또래애착, 분노표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9

일부터 3월 20일 까지 파일럿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는 4월 27일부터 5월 31일 까지 총 430부를 배부하여 418부가 수거되었고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27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쓰인 자료는 391부 이었다.

## 측정도구

### 부모애착척도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a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1998년에 육정(1998)이 수정한 개정본 (IPPA-R)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자기보고 질문지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음직스럽게 느끼는지에 대한 “신뢰감”, 부모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의 여부를 묻는 “소외감”의 하위영역이 있으며, 5점 척도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윤진아(2010)의 연구에서 부의 신뢰감은 Cronbach's  $\alpha$ 는 .86이고, 모의 신뢰감은 Cronbach's  $\alpha$  .83 이었으며, 부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  .89, 모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  .88, 부소외감은 Cronbach's  $\alpha$  .60, 모소외감은 Cronbach's  $\alpha$  .5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전체신뢰도계수는 부 Cronbach's  $\alpha$  .93, 모 Cronbach's  $\alpha$  .90, 여학생의 경우 부 Cronbach's  $\alpha$  .92, 모 Cronbach's  $\alpha$  .94 이었다. 하위유형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

우 부 신뢰감 Cronbach's  $\alpha$  .89, 모신뢰감 Cronbach's  $\alpha$  .76, 부의사소통 Cronbach's  $\alpha$  .91, 모의사소통 Cronbach's  $\alpha$  .90, 부소외감은 Cronbach's  $\alpha$  .62, 모소외감은 Cronbach's  $\alpha$  .54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부신뢰감 Cronbach's  $\alpha$  .88, 모신뢰감 Cronbach's  $\alpha$  .87, 부의사소통 Cronbach's  $\alpha$  .82, 모의사소통 Cronbach's  $\alpha$  .91, 부소외감 Cronbach's  $\alpha$  .62, 모소외감 Cronbach's  $\alpha$  .62로 나타났다.

### 또래애착척도

또래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김지연 (1995)이 번안하고 수정한 애착척도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 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신뢰감”, 친구가 내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한 “의사소통”,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의 묻는 “소외감”的 하위유형이 있으며 5점 척도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윤진아(2010)의 연구에서는 신뢰감 Cronbach's  $\alpha$  .82, 의사소통 Cronbach's  $\alpha$  .85, 소외감 Cronbach's  $\alpha$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는 남학생은 Cronbach's  $\alpha$  .88, 여학생은 Cronbach's  $\alpha$  .91로 나타났다.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신뢰감 Cronbach's  $\alpha$  .83, 의사소통 Cronbach's  $\alpha$  .84, 소외감 Cronbach's  $\alpha$  .70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신뢰감 Cronbach's  $\alpha$  .86, 의사소통 Cronbach's  $\alpha$  .86, 소외감 Cronbach's  $\alpha$  .72로 나타났다.

### 자동적사고 척도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경주, 오경자, 문혜진(2002)이 개발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를 사용하였다. 우울이나 개인적 실패와 관련된 “우울인지”, 보복심이나 적개심과 관련된 “적대적 인지”, 사회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된 “사회불안인지”, 신체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된 “신체적 위협 인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5점 척도를 가진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 하위유형으로는 우울인지 Cronbach's  $\alpha$  .90, 사회불안 인지 Cronbach's  $\alpha$  .92, 신체적 위협인지 Cronbach's  $\alpha$  .83, 적대적 인지 Cronbach's  $\alpha$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는 남녀 모두 Cronbach's  $\alpha$  .96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우울인지는 Cronbach's  $\alpha$  .95, 여학생의 우울인지는 Cronbach's  $\alpha$  .94, 남학생의 적대적 인지는 Cronbach's  $\alpha$  .85, 여학생의 적대적 인지는 .82, 남학생의 사회불안 Cronbach's  $\alpha$  .94, 여학생의 사회불안 Cronbach's  $\alpha$ 는 .95, 남학생의 신체적 위협은 Cronbach's  $\alpha$  .91, 여학생의 신체적 위협은 Cronbach's  $\alpha$  .92로 나타났다.

### 분노표현양식 척도

Spielberger(1988)가 제작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1997)가 번역 및 수정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STAXI를 박진숙(2007)이 재구성한 것으로, 4점 척도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가 행동화 하는 방식인 분노표현양식은 분노통제(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로 구

분된다. 김현주의 연구에서 분노표출은 Cronbach's  $\alpha$  .78, 분노억압 Cronbach's  $\alpha$  .77, 분노통제 Cronbach's  $\alpha$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는 남학생 Cronbach's  $\alpha$  .84, 여학생 Cronbach's  $\alpha$  .82로 나타났다.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분노표출은 Cronbach's  $\alpha$  .76, 분노억압 Cronbach's  $\alpha$  .82, 분노통제는 Cronbach's  $\alpha$  .82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분노표현은 Cronbach's  $\alpha$  .83, 분노억압은 Cronbach's  $\alpha$ .81, 분노통제는 Cronbach's  $\alpha$  .81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부와 모, 또래, 자동적사고와 분노표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애착과 분노표현간의 관계에서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연구 결과

인구학적 변수는 남학생 192명(49.1%), 여학생199(50.9%)이었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60명(15.3%), 2학년 151명(38.6%), 3학년 180명(46.0%)로 나타났다. 부애착평균은 남학생 3.29( $SD=.78$ ) 여학생 3.37( $SD=.77$ )로 나타났고 모애착은 남학생 3.49( $SD=.75$ ), 여학생은 3.57( $SD=.71$ )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평균은 남학생 3.30( $SD=.58$ ), 여학생 3.63( $SD=.58$ ), 자동적사고의 전체평균은

표 1. 성별에 따른 애착과 자동적사고, 분노표현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n	M	SD
부애착	남	192 (49.1%)	3.29	.78
	여	199 (50.9%)	3.37	.77
모애착	남	192 (49.1%)	3.49	.75
	여	199 (50.9%)	3.57	.71
또래애착	남	192 (49.1%)	3.30	.58
	여	199 (50.9%)	3.63	.58
자동적사고	남	192 (49.1%)	2.29	.83
	여	199 (50.9%)	2.32	.80
분노표현	남	192 (49.1%)	2.17	.42
	여	199 (50.9%)	2.23	.41

남학생 2.29(SD=.83), 여학생 2.32(SD=.80), 분노표현은 남학생 2.17(SD=.42), 여학생 2.23 (SD=.41)로 나타났다.

#### 남학생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N=192)

남학생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부애착은 모애착 ( $r=.73, p<.01$ ) 및 또래애착( $r=.25,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부애착은 자동적사고( $r=-.27, p<.01$ )및, 분노표현( $r=-.15,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모애착은 또래애착과( $r=.33, p<.01$ ) 정적 상관을, 모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 $r=-.29, p<.01$ )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모애착과 분노표현은 ( $r=-.11, p<.01$ )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또래애착은 자동적 사고 ( $r=-.40, p<.01$ )및 분노표현 ( $r=-.32, p<.01$ )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과 ( $r=.47, p<.01$ ) 정적상관이 있었다.

분노표현의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우울인지 는 분노표현( $r=.44, p<.01$ ) 및 분노억압과( $r=.54, p<.01$ ) 정적상관을 보였다. 적대감과 분노표현( $r=.26, p<.01$ )및 분노억압도 ( $r=.33, p<.01$ )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과 분노표현 ( $r=.33, p<.01$ )및 분노억압도 ( $r=.55, p<.01$ )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신체적 위협은 분노표현 ( $r=.31, p<.01$ )및 분노억압( $r=.44, p<.01$ )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신체 불안과 분노표현은 ( $r=.31, p<.01$ ) 정적상관이 있었다. 분노표현의 하위유형인 분노통제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분노의 억압과 조절이( $r=.23, p<.01$ )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보다 스스로의 억압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의사소통과 소외감, 모의 소외감, 또래의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자동적사고의 우울 인지, 사회불안, 신체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오직

卷之三

표 2. 남학생의 주요 변화 간 상관관계													(N=192)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4-4	5	5-1	5-2	5-3
1	1																				
1-1	.95**	1																			
1-2	.94**	.85**	1																		
1-3	.84**	.46**	.42**	1																	
2	.73**	.67**	.67**	.51**	1																
2-1	.67**	.68**	.61**	.56**	.56**	1															
2-2	.68**	.61**	.71**	.56**	.53**	.53**	1														
2-3	.46**	.33**	.29**	.28**	.61**	.46**	.46**	1													
3	.39**	.32**	.34**	.21**	.35**	.30**	.31**	.32**	1												
3-1	.23**	.20**	.24**	.16*	.31**	.20**	.33**	.33**	.13	.92**	1										
3-2	.23**	.18*	.26**	.11	.30**	.27**	.34**	.08	.89**	.86**	.1										
3-3	.17	.12	.02	.24**	.13	.11	.00	.35**	.46**	.15*	.10	1									
4	-.27**	-.24**	-.19**	-.19**	-.20**	-.25**	-.19**	-.39**	-.40**	-.30**	-.22**	-.46**	1								
4-1	-.34**	-.32**	-.36**	-.33**	-.33**	-.35**	-.25**	-.25**	-.31**	-.36**	-.25**	-.37**	.35**	1							
4-2	-.18**	-.14*	-.16**	-.18*	-.11	-.09	-.06	-.21**	-.09	-.07	-.04	-.10	.60**	.45**	1						
4-3	-.16*	-.13	-.09	-.17**	-.11	-.16*	-.13	-.37**	-.43**	-.33**	-.32**	-.33**	.66**	.57**	.37**	1					
4-4	-.13*	-.16*	-.08	-.26**	-.24**	-.23**	-.14	-.34**	-.31**	-.21**	-.16**	-.40**	.76**	.57**	.21**	.67**	.1				
5	-.13*	-.13	-.12	-.39**	-.11	-.07	-.07	-.18*	-.32**	-.21**	-.32**	-.47**	.48**	.20**	.40**	.33**	.1				
5-1	-.12	-.12	-.06	-.13	-.05	-.01	-.08	-.21**	-.21**	-.13	-.11	-.36**	.45**	.44**	.26**	.33**	.31**	.69**	.1		
5-2	-.24**	-.22**	-.19**	-.25**	-.23**	-.18*	-.18*	-.30**	-.42**	-.34**	-.26**	-.39**	.55**	.46**	.33**	.34**	.57**	.1			
5-3	.02	.06	-.02	.07	.10	.04	-.01	-.05	-.05	-.04	-.01	-.03	.05	-.01	-.03	.60**	-.01	.23**	.1		
M	3.35	3.16	3.35	3.40	3.57	3.40	3.49	3.30	3.25	3.16	3.55	3.20	2.95	3.08	2.10	2.15	2.17	2.03	2.01	2.48	
SD	.78	.88	.98	.73	.75	.90	.93	.65	.86	.74	.78	.70	.83	.104	.101	.104	.103	.42	.53	.63	

卷之三

卷之三

卷之三

3. ပေါင်းပို့မြတ်စွာ

(N=199)																						
표 3. 여학별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4-4	5	>1	>2	>3	
1	1																					
1-1	.97**	1																				
1-2	.94**	.83**	1																			
1-3	.73**	.64**	.53**	1																		
2	.66**	.63**	.59**	.58**	1																	
2-1	.63**	.64**	.53**	.45**	.96**	1																
2-2	.65**	.57**	.62**	.49**	.55**	.86**	1															
2-3	.56**	.46**	.38**	.37**	.78**	.68**	.61**	1														
3	.35**	.31**	.33**	.32**	.37**	.31**	.39**	.28**	1													
3-1	.32**	.28**	.31**	.24**	.31**	.37**	.35**	.37**	.37**	1												
3-2	.36**	.32**	.38**	.37**	.31**	.35**	.37**	.35**	.35**	.35**	1											
3-3	.31**	.28**	.31**	.46**	.32**	.37**	.36**	.42**	.43**	.39**	.32**	1										
4	.42**	.40**	.40**	.39**	.35**	.47**	.43**	.40**	.40**	.40**	.39**	.38**	1									
4-1	.40**	.43**	.34**	.34**	.32**	.32**	.40**	.40**	.40**	.40**	.38**	.38**	.38**	1								
4-2	.37**	.18**	.11**	.11**	.15**	.14	.14	.11	.10**	.11	.16**	.13	.13	.38**	1							
4-3	.36**	.33**	.37**	.44**	.36**	.30**	.33**	.43**	.39**	.37**	.37**	.37**	.37**	.37**	.37**	1						
4-4	.36**	.37**	.16**	.35**	.39**	.36**	.33**	.42**	.36**	.37**	.34**	.34**	.34**	.34**	.34**	.34**	1					
5	.28**	.25**	.24**	.25**	.25**	.21**	.21**	.21**	.08	.01	.00	.00	.00	.46**	.47**	.48**	.48**	1				
5-1	.31**	.31**	.36**	.36**	.31**	.37**	.36**	.37**	.06	.05	.06	.05	.05	.47**	.47**	.47**	.47**	.47**	1			
5-2	.34**	.31**	.37**	.37**	.37**	.33**	.33**	.31**	.06	.05	.06	.05	.05	.49**	.52**	.52**	.52**	.52**	.52**	1		
5-3	.08	.10	.04	.08	.08	.07	.07	.06	.05	.05	.05	.05	.05	.00	.00	.00	.00	.00	.00	.00	1	
M	3.37	3.48	3.20	3.44	3.57	3.66	3.51	3.20	3.63	3.58	3.68	3.67	3.32	2.14	3.03	2.18	2.13	2.12	2.05	2.51		

$$q \in \partial\Omega, \quad \psi_q < 0], \quad \text{et } q \in \partial\Omega]$$

분노억압만이 남학생의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N=199)

여학생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애착은 모애착 ( $r=.66 p<.01$ ) 및 또래애착과 ( $r=.35 p<.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애착은 자동적 사고 ( $r=-.42 p<.01$ ) 및 분노표현 ( $r=-.28 p<.01$ )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모애착과 또래애착은 ( $r=.37 p<.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모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 $r=-.47 p<.01$ )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모애착과 분노표현 역시 ( $r=-.25 p<.01$ )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래애착과 자동적 사고 ( $r=-.42 p<.01$ ) 및 분노표현은 ( $r=-.08 p<.01$ )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분노표현은 자동적사고와 ( $r=.54 p<.01$ )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분노표현의 하위 유형 중에서 또래의 신뢰감은 분노억제에 ( $r=-.21 p<.05$ )로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또래의 신뢰감은 여학생의 분노통제에 ( $r=.18 p<.05$ )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의 의사소통은 분노표현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분노억제와

( $r=-.18 p<.05$ )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분노통제와는 ( $r=.22 p<.01$ )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또래와의 신뢰감 형성이 여학생의 분노통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과 여학생의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 모, 또래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또래애착은 자동적 사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 $\beta=-.34 p<.001$ ), 부와 모의 애착은 자동적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모애착은 ( $\beta=-.28 p<.01$ ), 또래애착은 ( $\beta=-.26 p<.001$ )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또래애착만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애착, 그리고 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과 여학생의 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 모, 또래애착이 분노

표 4. 남학생과 여학생의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학생 (N=192)						여학생 (N=199)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자동적사고	부애착	-.12	.10	-1.30			-.14	.08	-1.78				
	모애착	-.09	.11	-.87	.20	.18	-.28	.09	-3.44**	.30	.29		
	또래애착	-.34	.10	-4.94***			-.26	.08	-4.09***				

\* $p<.05$ , \*\* $p<.01$  \*\*\* $p<.001$

표 5. 남학생과 여학생의 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학생 (N=192)						여학생 (N=199)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분노표현	부애착	-.16	.05	-1.55			-.21	.05	-2.29*				
	모애착	.11	.06	1.10	.11	.10	-.12	.05	-1.31	.09	.07		
	또래애착	-.32	.05	-4.37***			.04	.05	.52				

\* $p<.05$ , \*\* $p<.01$  \*\*\* $p<.001$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또래애착은 ( $\beta=-.32 p<.001$ )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애착은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부애착이 ( $\beta=-.21 p<.05$ )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종합해보면 남학생은 또래애착이, 여학생은 부애착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동적사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동적사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 $\beta=.54, p<.001$ )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도 ( $\beta=.47 p<.001$ )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 모, 또래관계에 대한 분노표현하위유형의 회귀분석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 모, 또래관계에 대한 분노표현하위유형에 대한 회귀분석(Enter방식)은 표 7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을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소외감을 느낄수록 ( $\beta= -.20 p<.05$ ), 어머니에게 소외감을 느낄수록 분노억압을 ( $\beta= -.27, p<.01$ )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감 ( $\beta= -.25, p<.001$ )을 느낄수록 남학생들은 분노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와의 소외감이 ( $\beta= -.35, p<.001$ ) 남학생의 분노억압에도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을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소외감을 느낄수록 ( $\beta= -.29, p<.001$ ) 분노억압을 하며, 어머니에게 소외감을 느낄수록 ( $\beta= -.33 p<.001$ )

표 6.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동적사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학생 (N=192)						여학생 (N=199)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분노표현	자동적사고	.54	.03	9.05***	.29	.29	.47	.03	7.29***	.22	.21		

\* $p<.05$ , \*\* $p<.01$  \*\*\* $p<.001$

표 7. 남녀의 부, 모, 또래관계에 대한 분노표현하위유형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남학생			여학생					
		$\beta$	SE	t	$\beta$	SE	t			
아버지	분노표현	신뢰감	-.21	.09	-1.47	-.18	.10	-1.36		
		의사소통	.153	.075	1.11	R=.03 R <sup>2</sup> =.01	-.04	.07	-.30	R=.33 R <sup>2</sup> =.11
		소외감	-.09	.060	-1.04		-.14	.08	-1.64	
어머니	분노역압	신뢰감	-.11	.097	-.77		-.10	.10	-.76	
		의사소통	-.02	.084	-.13	R=.276 R <sup>2</sup> =.076	-.03	.07	-.25	R=.38 R <sup>2</sup> =.15
		소외감	-.20	.07	-2.40*		-.29	.08	-3.41***	
또래관계	분노통제	신뢰감	.28	.10	1.91		.20	.11	1.44	
		의사소통	-.21	.09	-1.50	R=.14 R <sup>2</sup> =.02	-.13	.08	-1.05	R=.13 R <sup>2</sup> =.02
		소외감	-.07	.07	-.84		.02	.09	.20	
부모	분노표현	신뢰감	-.20	.08	-1.52		.02	.12	.11	
		의사소통	.18	.08	1.41	R=.14 R <sup>2</sup> =.01	-.07	.09	-.56	R=.37 R <sup>2</sup> =.14
		소외감	-.06	.07	-.77		-.33	.09	-3.67***	
부모	분노역압	신뢰감	.01	.08	.11		.06	.12	.39	
		의사소통	-.08	.08	-.70	R=.31 R <sup>2</sup> =.10	-.10	.09	-.75	R=.32 R <sup>2</sup> =.10
		소외감	-.27	.07	-3.52**		-.29	.09	-3.14**	
부모	분노통제	신뢰감	.21	.09	1.60		.00	.13	.01	
		의사소통	-.10	.09	-.82	R=.13 R <sup>2</sup> =.02	.06	.10	.42	R=.08 R <sup>2</sup> =.01
		소외감	-.06	.08	-.71		.03	.09	.28	
부모	분노표현	신뢰감	-.07	.09	-.52		.12	.13	.88	
		의사소통	-.03	.08	-.25	R=.28 R <sup>2</sup> =.08	.06	.12	.47	R=.32 R <sup>2</sup> =.11
		소외감	-.25	.05	-3.51***		-.34	.07	-4.60***	
부모	분노역압	신뢰감	-.27	.10	-2.27*		-.01	.12	-.08	
		의사소통	-.02	.09	-.17	R=.48 R <sup>2</sup> =.24	-.03	.10	-.21	R=.46 R <sup>2</sup> =.22
		소외감	-.35	.06	-5.43***		-.45	.06	-6.52***	
부모	분노통제	신뢰감	-.02	.12	-.16		-.03	.13	-.21	
		의사소통	-.03	.11	-.19	R=.06 R <sup>2</sup> =.00	.25	.12	1.75	R=.22 R <sup>2</sup> =.05
		소외감	-.03	.07	-.43		-.01	.07	-.10	

\*p&lt;.05, \*\*p&lt;.01 \*\*\*p&lt;.001

분노표현을 하고, 어머니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록 ( $\beta = -.29, p < .01$ ) 분노억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 $\beta = -.34, p < .001$ ) 분노표현을 하며,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은 ( $\beta = -.45, p < .001$ ) 분노억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소외감은 분노억압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은 여학생에 있어 분노표현과 억압에 부적영향이, 남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은 분노억압에 부적영향, 그리고 또래에 대한 소외감은 남녀 모두 분노표현과 분노억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 모, 또래애착과 분노표현에 대한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애착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부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부애착과 자동적 사고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모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또래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의 또래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또래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또래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모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모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모애착과 자동적 사고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또래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의 또래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또래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또래애착과 자동적 사고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또래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동적사고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량은 남학생이 총 22%, 여학생이 30%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자동적사고가 분노표현에 있어 다소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 모, 또래애착과 분노표현에 대한 자동적사고의 매개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애착과 모애착은

표 8. 남녀의 부, 모, 또래애착과 분노표현에 대한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

절차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학생						여학생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beta$	SE	t	R <sup>2</sup>	adjR <sup>2</sup>
1	분노표현	부애착	-.15	.04	-2.15*	.024	.02	-.28	.04	-4.08***	.08	.07
2	자동적사고	부애착	-.27	.08	-3.91***	.074	.07	-.42	.07	-6.56***	.18	.18
3	분노표현	부애착	-.03	.04	-.43	.22	.21	-.06	.04	-.92	.30	.29
		자동적사고	.46	.03	6.88***			.52	.03	7.81***		
1	분노표현	모애착	-.11	.04	-1.46	.01	.01	-.25	.04	-3.60***	.06	.06
2	자동적사고	모애착	-.29	.08	-4.15***	.08	.08	-.47	.07	-7.54***	.22	.22
3	분노표현	모애착	.03	.04	.49	.22	.21	.01	.04	.15	.30	.29
		자동적사고	.48	.03	7.11***			.55	.04	8.02***		
1	분노표현	또래애착	-.32	.05	-4.66***	.10	.10	-.08	.05	-1.15	.01	.00
2	자동적사고	또래애착	-.40	.10	-6.05***	.16	.16	-.42	.09	-6.46***	.18	.17
3	분노표현	또래애착	-.16	.05	-2.27*	.24	.23	.18	.05	2.71**	.32	.31
		자동적사고	.40	.04	5.83***			.62	.03	9.49***		

\* $p < .05$ , \*\* $p < .01$ , \*\*\* $p < .001$

완전매개, 또래애착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equation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a와 Sb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ab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결과 Z값은  $p < .05$  수준에서 남학생의 경우 부애착은 -3.38, 모애착은 -3.56, 또래애착은 -4.19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부애착은 -5.04, 모애착은 -5.49, 또래애착은 -5.3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남, 여 중학생의 애착과 자동적사고, 분노표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애착과 분노표현에서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모, 또래애착과 자동적사고, 분노표현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신뢰감과 또래의사소통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하위유형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신뢰감, 부의사소통, 부소외감, 모신뢰감, 모의사소통, 모소외감, 또래소외감, 우울인지, 적대적 인지, 사회불안, 신체적 위협,

분노표현, 분노억압, 분노통제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은지(2011)는 부와 모애착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중, 고등학생을 연구한 이영화(2011)의 연구에서는 부애착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에 대해 이영화(2011)는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 또한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아져 남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남자의 역할모델이 되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아버지와의 애착이 여학생들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주은지(2011)는 또래애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소수의 보다 친밀한 우정관계를 선호하는 것을 보고되는 점(Bembd, 1982)에 근거를 찾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집단으로 친구를 사귀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단짝 친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래애착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수희, 2009; 오송희, 1999), Fenzel(1989)은 여자청소년들에게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대인관계에 더 신경 쓰는 행동, 즉 친구들과 전화하는 시간이 급증하고 친구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세심하게 마음 쓰는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영화, 2011).

자동적 사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심은실과 김영혜(2011)의 연구와 초4와 중2를 대상으로 한 신현균(2009), 그리고 중, 고등학생을 연구한 이영화(2011)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동적사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희연과 하은혜(2008)는 여아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 양재원외(2005)도 중, 고여학생이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분노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가희(2008)의 연구에서 분노억압과 분노조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분노표출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초, 중, 고의 집단에서 분노수준을 알아본 송지은, 횡순택, 전미주(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 집단은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빈도의 분노억제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중학생 집단에서 분노억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고등학생에 비해 신념이나 자기주장성은 약하고 초등학생에 비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화를 터트리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속으로 참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제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와 모, 또래애착, 자동적사고, 분노수준은 연구마다 남녀의 차이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애착과 자동적사고와 분노표현에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애착과 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자동적사고와 정적상관이, 분노표현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나승은(2008)의 연구에서도 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이후의 안정적인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들(전효정외, 2000; 홍주영 외, 2002; Cohn et al., 199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현진(2010)은 남학생의 분노억압과 분노조절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은 또래애착의 강함에 따라 또래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분노를 억제하게 되고, 이렇게 억제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정녀,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도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에는 정적상관이 있었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실패나 좌절,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복수심,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의 신변에 대한 불안을 적게 느낀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 모, 또래애착은 분노표현과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또래애착이, 여학생은 또래애착과 모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 모,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또래애착이, 여학생은 부애착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화(2011)는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요인으로 모애착, 부애착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그 다음으로 또래의 소외감이 청소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자동적 사고를 낮추기 위해 부, 모, 또래와의 높은 신뢰감

형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와 또래의 노력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나승은(2008)은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애착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청소년 시기에 분노 표현, 일탈 행동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행동 양상은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Elickson et al., 2004)를 들어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대학생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대학생의 부정적 사고는 친구와의 애착관계에서 특히 소외감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김정문, 2008). 김정문(2008)은 그의 연구에서 부애착, 모애착,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고가 낮은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분노의 요인으로 아버지와의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애착이 중요함을 나타냈다.

넷째, 자동적 사고는 남녀 모두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수균(2007)의 연구에서 절대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격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이와 유사하게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억제한다고 하였고(채유경, 2001), 비합리적 신념 자체에 의해 분노가 유발될 수 있다는 김용태(1996)의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동적사고가 분노표현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동적 사고는 남녀 모두 부애착과 모애착이 분노표현에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

향에서는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문(2008)은 부정적 사고가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밖에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동적 사고는 매개역할을 하고(이주영, 2009),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동적 사고는 스트레스가 외현적, 내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은실, 김영해, 2011).

본 연구 결과를 결론적으로 본다면, 남학생의 또래애착과 여학생의 또래애착, 모애착은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남학생의 또래애착과 여학생의 부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쳤다. 또래와의 소외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분노표현과 분노억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또래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분노의 부정적인 부분인 분노표현과 억압에 있어 남학생과 모두 또래와의 소외감이 분노억압과 분노표현의 원인이라고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남녀 청소년들의 분노표현에 대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또래와의 소외감을, 그리고 이 외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표현과 자동적 사

고의 관계를 연구함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태에서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연구를 시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청소년의 분노표현과 관련하여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김현양(2012)의 연구에서 남자 중학생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좋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남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부모 애착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 어머니,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이 분노를 억압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들이 관계에서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남녀 중학생에 있어 분노표현의 원인으로 아버지애착, 어머니애착, 자동적 사고를 제안하여, 애착과 자동적사고가 청소년들의 분노표현에 중요한 요인임을 하고 밝혀냈다.

성별에 따라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침과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안윤영(2012)은 분노표현 방법이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더욱 확고해지며 만일 잘못된 분노표현 방식을 이 시기에 개선하거나 구조화 하지 않을 경우 정서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에 까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초기 청소년기의 분노표현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에 있어 남녀를

함께 연구한 국내의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성별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노표현을 연구하였다는데 의미를 들 수 있다. 또한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자동적사고, 분노표현에 있어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은 기준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추후 연구에 연구가 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둔 예방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인상담을 실시할 때 성별에 따라 달리 개입할 있는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넷째, 분노표현의 하위유형, 즉 분노표현, 분노억압, 분노통제에 대한 부, 모, 또래애착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하였다.

다섯째, 중학생의 자동적사고의 중요성을 밝혔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동적 사고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적 사고가 분노청소년의 분노표현에 실제로 자동적사고가 이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분노표현을 중재하는 방안으로 자동적사고의 교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선정이 서울과 경기도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중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표집대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셋째, 본 연구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이 자동적 사고를 통해 분노

표현으로 갈 때 완전매개를, 또래애착은 분노표현에 자동적사고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변수의 설정을 확장하여 하위요인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에서는 매개 효과를 보는 것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를 한번에 제시하여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적인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서원대학교미래창조연구원, 5(3), 13-24.
- 김가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 (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학회, 17(3), 393-410.
- 김수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리 (2011). 정서조절양식이 불안정 애착 성인의 정서 및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문 (2008).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6), 197-224.
- 김현순 (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김현양 (2012). 청소년의 부, 모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성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0). 중학생의 수줍음과 또래애착 그리고 분노표현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준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상담심리학회, 4(1), 75-93.
- 나승은 (2008). 모애착과 또래애착, 내현적 자기애가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인간발달연구, 15(3), 131-147.
- 민규영, 송현주 (2010). 공격성향, 분노표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찰. 심리치료, 10(1), 35-52.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4), 955-963.
- 박태영 (2009).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분노에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 (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 연령과 성에 따른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8(4), 1083-1105.
- 박경택 (2001).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녀 (2004). 청소년의 부, 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 모 애착과 자동적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17(1), 249-264.
- 박한아 (2006).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6(2), 213-227.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수균 (2007). 한국판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6(2), 533-544.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4), 809-826.
- 신미영, 김재환 (2001). 내원 청소년의 분노표현 양식에 따른 MMPI 반응특징. 한국심리학회지, 20(2), 299-309.
- 신현숙, 구본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 심은실, 김영혜 (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의 관계: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4(4), 초등교육연구.
- 이승연, 송경희 (2012). 남녀 중학생의 부/모 애착과 또래 괴롭힘 방어, 방관행동의 관계: 정서조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9(2), 393-415.
- 이상희 (2011). 부모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양가성, 정서표현불능의 매개효과. 인

- 천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주 (2010). 청소년의 애착수준과 애착유형에 따른 열등감과 분노표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7). 청소년의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 대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내용특수성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동적사고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영 (2009).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이정자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서울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원 (2008). 청소년의 애착요인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하은혜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여성심리학회. 13(4), 547-561.
- 이은주 (2007).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 이재창 (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6(2), 207-226.
- 이명희 (2011).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울감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연, 이영호, 최영안 (2004).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3(3), 595-606.
- 양재원, 홍성도, 정유숙, 김지혜 (2005). 부정적 자동적사고 질문지(ATQ-N)와 긍정적 자동적사고 질문지(ATQ-P)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4(3), 631-646.
- 윤진아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선 (2001). 분노 조절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윤영 (2012). 중학생의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의 관계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송희 (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대학원.
- 지수경 (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기질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17(2), 85-106.
-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과 발표상황의 불안반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5(1), 205-219.
- 주은지 (2007). 미국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한국국가정관리학회. 25(4), 101-112.
- 주은지 (20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낭만애착. 한국청소년학회, 18(4), 141-171.
- 장휘숙 (1997).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4(1), 88-106.
- 전효정, 이귀옥 (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전현숙, 손정락 (2011). 역기능적 분노표현 및 비합리적 신념과 마음 챙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30(2), 377-396.
- 채유경 (2001).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진선 (2007).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세연 (2009). 청소년의 문화성향, 정서표현양가성,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7(2), 21-38.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1(4), 71-89.
- 최윤정 (2005).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15-25.
- 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llen, J. P., Bell, K. L., Moore, C., & Kupermine, G. P. 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406-419.
- Caspi, A., Lynan, D., Moffitt, T. E., & Silva, P. A. (1993). Unraveling girls delinquency: Biological dispositional and contextual contributions to adolescents mis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3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2nd). New York, NY. Basic Book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Elickson, P. L., Tucker, J. S., Klein, D. J., & Saner, H. (2004). Antecedents and outcomes of marijuana use initiation during adolescence. *Preventive Medicine*, 39(5), 976-984.
- Fenzel, L. M. (1989). Role Strains and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Longitudinal Trends and Sex Difference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3), 211-226.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h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 12, 373-386.
- Hartup, W. W. (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NY: Plenum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ollon, S. D., & Bernis, K. M. (1981). *Self-report and the assessment of cognitive functions*. In M. Herson and A. S. Bellack(Eds.), *Behavioral Assessment: A Practical handbook* (2and). New York: Pergamon Press.
- Kobak, R. R. & Scree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Cole, H., Fleming, W., Ferenz-Gillies, R.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Kwon, S., & Oei, TPS. (1992). Differential caus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309-328.
- Kwon, s., & Oei, TPS. (1994). The roles of two levels of cognitions in th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treatment of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 331-358.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pp.161-190). Hillsdale, NJ: Erlbaum.
- Stiles, T. C., & Gotestam, K. G. (1989). The role of automatic negative thoughts in the development of dysphoric mood: An analogue experi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363-370.
- Steinberg, L., & Silverberg, S. E.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Spielberger, C. D., Rehearser, E. C., & Sydman, S. M.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Kassinove(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49-67. Taylor & Francis.
- Zaitsoff, S. L., Geller, J., & Srikanthar,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0(1), 251-260.

1 차원고점수 : 2012. 12. 16.

수정원고점수 : 2013. 2. 10.

최종개재결정 : 2013. 2. 20.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to Anger Expression:  
Mediating Effect of Automatic Thought**

**Myong Hwa Kim**

**Young Ja Park**

Myongji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fluence of paternal, maternal, and peer attachment on anger expression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determining the involvement of automatic thought as a mediator. Three hundred ninety one middle school students(192 male and 199 female) completed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paternal, maternal, and peer attachment; automatic thought; and anger expression.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es,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variables.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peer faithfulness and peer communication, but no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other sub-factors. Paternal, maternal, and peer attach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in both genders, but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utomatic thought and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ger expression. Additionally, the levels of paternal, maternal, and peer attachment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mount of automatic thought, and the amount of automatic though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mount of anger expression. At last, automatic thought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attachment and anger expression, a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eer attachment and anger ex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an important role of intervening automatic thought in softening anger ex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paternal attachment, matern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ger expression, automatic thought*